

# 구역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10월 12일(수) 저녁 7시0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목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양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마태복음(마)22:1-14(p.37) 가족 중에서
- 말 씀 / “혼인잔치 초청의 비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1. 포도원 주인의 악한 소작인 비유에 이어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다?(2절) 왕이 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4절) 청한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5-6절)

예수님은 다시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 임금(왕)과 같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1-2절). 왕은 먼저 혼인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3절상).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자리에 오라고 하였습니다(3절중).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참석하기 싫어했습니다(3절하). 이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자리에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이미 오찬을 다 준비했으니 재차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4절).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거나,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5-6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십니다(딤후2:4).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초청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2.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왕은 어떻게 대하셨습니다?(7절) 그리고 왕이 종들에게 한 지시는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8-10절)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왕이 분노하셨습니다(7절상).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임으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7절하). 그리고는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8절)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

라고 했습니다(9절). 이에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 자리에 데려옴으로 혼인잔치자리에 손님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10절).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적대한 사람들 앞에는 심판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영원한 멸망 뿐입니다(21:38-41, 44) 우리는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을 해야만 합니다(롬10:9,10). 성경말씀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롬13:14, 계19:8).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정쩡한 신자로서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왕은 잔치 자리에 가득찬 사람들 중에 있었던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11-13절)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14절)

왕은 잔치 자리에 응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11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1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드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왕은 사환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13절).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14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 1.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게 하소서.
- 2.재개발조합의 사업이 속히 잘 진행되고, 교회의 건축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 3.자녀들의 학업의 성취와 취업의 길과 비전의 성취가 있게 하소서.
- 4.10월 15일에 예정된 동성애광장축제가 모이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소서.
- 5.정치와 경제 등의 불확실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부의 지도자들과 각 지방의 새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소서.
- 6.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7.가정과 구역과 지역을 지켜 주시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소서.

## ● 마무리 기도 / 맡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287장(통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주기도문: 다같이